

성경, 여성에 대해 말하다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핵심적인 신학적 질문 중 하나이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성경해석과 교회사에서 도전이었으며, 최근에는 한국교회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에서 모든 문제나 이슈는 결국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에 관한 논의도 성경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언과 완성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특별히 여성문제를 따로 다룬 건 아니다.

그러나 신구약 곳곳 갈피갈피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 지위 등에 관한 시혜들을 묶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볼 것이다.

1. 구약의 여성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6~27)

이 창조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즉, 인간은 남성과 여성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게’하는 책임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창조명령을 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 가운데 존재한다. 초대 교부들은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여자가 비록 2등급이라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의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교”(신 31:11-12) 이 말씀에서 보듯, 여성도 인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과 백성간의 인약관계는 축복의 약속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책임을 포함한다.

구약시대의 성직 수행과 공직(사사, 선지자, 왕 등)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선택하셨다. 당시 사사와 선지자 직분은 종교적 직분이었으나 사회 리더의 성격도 강했다. 사사기 4장 4~6절에 보면, 드보라는 당시 여선지자와 여사사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홀더와 같은 여선지자는 당시 요시아 왕의 율법 관련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였다(왕하 22:14~20). 드보라와 홀더 모두 결혼한 여성으로, 각각 한 남편의 아내이었다. 이렇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왕하 11:3).

구약시대에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재산 상속이 가능했는지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원래 이스라엘의 상속은 남자 계열을 통해 이루어졌다. 딸들은 결혼함과 동시에 출가외인으로 간주되었고, 남편 가문에 속하였다. 따라서 보통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지만, 결혼 지침금과 예물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은 딸들에게 그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욥42:15). 욥은 시와 내 남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기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 갈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슬로브트의 다섯 딸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족’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삼상 9:20)으로 표현된 혈연공동체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모세에게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남독하라고 명하셨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남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였다(민 27:1~11, 36:1~9).

구약을 대충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남자가 상호보완적이고 평등했던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타락 이후 지배와 종속 관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구약에 여성에 관한 많은 기록은 없지만, 사실 구약시대의 여성들은 가정, 사회, 종교 영역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열심히 살았다. 창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여성이 열등함을 가리킨 적은 없다. 다만 당시 여성의 정체성은 상황적인 종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약의 여성 - 예수님의 여관

구약시대는 여자 선지자나 사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여성의 열등함이 강조되면서 그들의 지위나 대접이 낮아졌다. 이는 유대주의(Judaism) 전통이 확립되어 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대교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문화와 가치관에 반영하여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종교나 교육, 사회에서 제외되었고, 있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가정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접근하신 방식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관련 기록은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 기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기이 '혁명적'이었다.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자유롭고도 자원으로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도록 허용해주셨다. 그래서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새

로운 것이었는데,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셨다. 결혼여부나 성, 직업,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하셨다. 사랑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대상을 파악하셨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 12:50)고 하셨다. 또한 여성을 남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오렐리아나 여자에게 따라붙었던 '유혹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서 동료인간이요, 동료계사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다(마 5:28). 결혼생활에서 정절과 헌신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셨고, 당시 모세 율법에 따라 이혼 중서만 써 주면 이혼을 당했던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셨다(막 10:11).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여성을 이브라함의 지손, 선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셨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들려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성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는 "이브라함의 딸"(눅 13:16)이라 불러주는 사건이 나온다.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서는 이브라함의 아들, 이브라함의 씨, 이브라함의 지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특히 '이브라함의 아들'은 모든 유대 민족, 특히 유대 남성의 정체성의 의미이다. 이러한 호칭이 여성에게 "이브라함의 딸"이라는 식으로 사용된 적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브라함의 지손임을 당시 유대인 종교지도자 앞에서 선포하여 주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4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없고 도리어 그들을 따르 귀의 아들'이라고 까지 부르셨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

을 선포하셨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이브라함의 지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라고 선포하고 있다.

셋째, 여성을 책임 있는 존재로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시 여성을 불쌍히 여겨 어린이를 감싸듯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신 것만은 아니다. 여성도 죄인이며, 구원과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셨다. 간음하다 잡힌 여성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2~11)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도 이름 없는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의 죄를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여성을 낭만적인 대상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셨던 것이다.

넷째, 여성을 신학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가르치셨다. 신약시대에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눅 10:39)에 불평하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눅 10:42)고 단언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서는 마리아의 입을 통해 사도 베드로 수준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도 한다. "주여 그러하옵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처럼 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수로모니에게 여인(마 15:21~28, 마 7:24~30)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방 여자였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총명함과 통찰력을 공개적인 대화로 이끌고, 또한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요 4:7~42)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야라고 밝히며 그 여인을 영생으로 이끌



김희자 종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영아영문학과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광범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기독교교육진흥회(KSCIE) 회장, 동명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여성과 성직', '자녀교육을 깨운다' 등이 있다.

다. 거기다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할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다.

다섯째, 여성들이 예수님의 수난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들이 나온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들은 증인으로 역할한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들은 증인으로 역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할 때 말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때에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들보다도 여성들의 눈과 입을 통해 전파되게 하셨을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헨드릭슨은 이러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그의 요한복음 주석(요 20:12)에서 "큰사랑에 대한 보답인가? 연약한 믿음에 대한 지원인가?" 라고 질문한다. 이에 답하기를, "이 여성들은 사도들보다 더 큰 인내와 더 큰 충성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인 예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모두를 죄인으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고, 말씀으로 교육 받아야 할 존재로 보셨다. 또한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과 다르게,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라며 인간평등을 선포하셨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는 "여성(여내)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 3:7)고 명령하셨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여성도 믿음으로 '이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증하고 있다. 6